

**Tore Nasset, *How Russian Came to Be the Way It Is:*
A Student's Guide to the History of the Russian Language,
Bloomington: Slavica, 2015**

정 하 경*

필자는 역사언어학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러시아어 발달사를 배우는 학부생들에게 효과적으로 도움이 될 출판물에 어떤 것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 왔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특정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2015년에 출판된 토레 네셋(Tore Nasset) 교수의 저서 『러시아어는 어떻게 현대의 모습이 되었는가(*How Russian Came to Be the Way It Is*)』(Bloomington: Slavica, 이후 *How Russian...*으로 지칭)를 살펴보고자 한다.

러시아어 역사언어학 연구자들에게 고전으로 자리매김한 보르콥스키(В. И. Борковский)와 쿠즈네초프(П. С. Кузнецов)의 『러시아어 역사문법(*Истор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Москва: АН СССР, 1963)을 비롯하여 러시아에서 출판된 학술서와 교과서들이 상당수에 이르지만, 러시아어로 씌어진 전문어학서적을 읽기에는 한국 학부생의 러시아어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번역서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출판된 러시아어 역사문법 서적은 거의 부재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가 학부생들을 위한 참고교재로 주로 고려하게 되는 것은 영미권에서 출판되는 서적들이다. 영미권에서는 로만 야콥슨(Roman Jakobson)의 구조주의 학파의 약진과 냉전 시대의 수요에 힘입어 70년대부터 슬라브어학이 양적, 질적으로 크게 발달했다. 특히 슬라브 역사언어학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수많은 저명 연구

* 서울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Jung, Hakyung, Professor in the Department of Russian Language and Literatur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자들이 배출되었다. 이들과 이들의 제자들이 러시아 역사언어학자들과의 학문적 공조관계를 바탕으로 현재까지 영미권에서 슬라브 역사언어학을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들의 전통 하에서 Schenker(1995), Townsend and Janda(1996) 등 중요한 전문학술서와 교과서들이 출판되었다.

본 글에서 살펴볼 네셋 교수의 *How Russian...* 역시 이러한 전통을 잇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저서들 중 Schenker(1995)와 같은 것은 상당히 전문적이고 함축적이어서 어느 정도 언어학적 지식을 구비하고 있는 대학원생들에게 적절한 반면, 또 어떤 것들은 너무 간략하여 구체적인 언어변화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가령, G. O. Vinokur, *The Russian Language: A Brie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1, 영역본). 이들과 비교할 때, *How Russian...*은 내용이 결코 알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 수준에서 적절한 난이도와 범위를 지니고 있다. 이 책은 고대러시아어의 언어적 변화뿐 아니라 이를 둘러싼 역사, 문화적 맥락을 통합적으로 소개하는 교과서이다. 저자가 서론에서 밝히고 있듯이, 아직 다양한 언어학적 개념과 이론을 잘 알지 못하는 학생들이 부담없이 러시아어의 역사를 접하면서 언어변화의 실례와 원리를 소화할 수 있게끔 돕는 길잡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이 책은 언어적 상황 외 역사적, 문화적 측면에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Vlasto(1986)에 비해 언어학적 지향이 훨씬 확고하다.

*How Russian...*은 17세기까지의 러시아어 발달사를 다룬다. 슬라브어 전반(혹은 동, 서, 남슬라브어의 대표적 언어들)에 대해 논의하는 Schenker(1995)나 Townsend and Janda(1996) 등과 달리 고대러시아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고대남슬라브어임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러시아어의 일부로 존재해 온 고대교회슬라브어 또한 비교적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다. 슬라브어를 폭넓게 다루기보다 주로 러시아어에 관심이 있는 한국 학부생들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How Russian...*의 러시아어 중심의 논의가 더 효율적이고 간명할 것이다.

책의 구성을 보자. 먼저 간략한 서론 이후 동종 교과서들의 통상적 기술 방식을 따라 루시와 고대러시아어의 역사 이야기가 전개된다(1장). 역사언어학, 문헌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텍스트들이 제시되고(2장), 그 다음에는 러시아어사 연구에 필요한 역사언어학 개념과 원리를 소개하는 방법론

장이 나온다(3장). 필자가 보기에 이 방법론 장은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 중 하나이다. 통상 강의자에 의해 학생들에게 부수적으로 전달되거나 관련 논문들을 읽어야만 알 수 있는 언어변화 원리(상대적 순차, 재분석, 문법화, 차용 등)를 책 내용에 독립된 장으로 포함시킴으로써, 독자들이 구체적인 언어변화 사례의 흐름에 휩쓸리기 전에 특정한 언어변화가 왜 일어난 것인지, 데이터가 어떻게 분석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과 도구를 갖추 수 있게끔 한다.

방법론을 다룬 3장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공통슬라브어에서 고대러시아어로 이어지는 언어변화들이 기술된다. 음운론을 가장 먼저 다루는 기존 교과서들과 달리, 이 책에서는 형태문법론(4~8장)이 가장 먼저 나오고 통사론(9장), 음운론(10~13장)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저자는 서론에서 문법을 소리체계 전에 다루는 것이 전통적인 방식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저자는 자신의 강의 경험에 따르면 텍스트를 읽으면서 동시에 문법을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며, 문법에 대한 장들은 텍스트를 읽기 시작하는데 필요한 언어적 도구를 제공하기에, 텍스트 강독과 덜 직결되는 소리체계 관련 장들을 나중에 배치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은 영역별 배치순서는 저자가 이 책을 구상함에 있어 학생들의 학습 효율성을 크게 고려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교육과 연구 모두에 있어 격과 상, 태 등 형태론에 대해 저자가 가지고 있는 각별한 관심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고 여겨진다.

다른 교과서들과 구별되는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노브고로드 자작나무 문서에 반영된 고대 노브고로드 방언의 특질에 독립된 한 장을 할애하여 기술하고 있다는 점이다(14장). 러시아어 역사언어학에서 자작나무 문서와 고대 노브고로드 방언이 차지하는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과서에서 러시아어 방언에 대한 간략한 언급 외에 따로 자세히 다루어진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통상적으로 교과서에서는 소위 “표준” 고대러시아어의 발달과정에 중점을 두면서 고대남부방언이나 고대북부방언에서 진행된 상이한 언어변화 양상에 대해서는 비교 정도의 수준으로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책의 말미에는 다양한 문법범주의 형태 패러다임 표, 고대교회슬라브어와 고대러시아어의 주요 차이를 정리한 표, 주요 소리변화의 상대적 순차 표, 그리고 텍스트 분석 샘플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부록은

학생들의 실용적 필요에 부응하는 자료가 아닐 수 없다. 특히, 텍스트 분석 샘플은 어떤 기존 교과서에도 포함된 적이 없었던 내용으로서 그 교육상 유용성이 두드러진다. 주요 고대 문헌의 발췌본을 제시하고 지금까지 다루어진 각종 언어변화가 반영되어 있는 부분을 짚어주고 설명함으로써 언어변화에 대한 학습이 단지 추상적 규칙의 암기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어떻게 구축이 되어 왔는지, 또 어떻게 고대문헌 분석에 적용되는지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의 학습에 대한 배려는 각 장마다 마련된 권장독서 목록에서도 드러난다. 각 주제별로 주요 논지를 몇 가지씩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이 관련주제에 대해 더 깊이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편, 기존 교과서들에 비해 주제별, 분야별로 더 일목요연한 구성과 편집을 보이고 있으며, 자세한 인덱스와 관련연구 목록을 제공하는 등 실용적 측면에서 사용하기 편리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책의 곳곳에서 저자는 언어변화의 평면적 기술에 머물지 않고 그에 대한 학계의 다양한 분석과 상반된 견해들을 제시함으로써 독자의 흥미와 비판적 사고를 제고한다. 가령, 연구개음의 전모음 앞 연음화의 동인에 대한 분석을 소개한다든지, 구개음화 순서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을 비교하는 등, 흥미로운 분석상의 문제들을 다룸으로써 단순한 팩트의 나열을 넘어 학생들이 “왜?” 또는 “어떻게?”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필자에게 개인적으로 흥미로웠던 점은, 이 책에서는 모스크바 시대 이전까지의 동슬라브 언어상황에 대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Old East Slavic’이나 ‘Old Russian’과 같은 용어 대신에 ‘Old Rusia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는 저자가 미국 구조주의 슬라브어학 연구자들의 관점을 채용하고 있으며 기술적 측면에서 용어의 정확성에 신경을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참고문헌

- 강홍주 · 강덕수(1993) 『러시아어사』, 서울: 민음사.
- Schenker, Alexander(1995) *The Dawn of Slavic: An Introduction to Slavic Philology*, New Haven;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ownsend, Charles, E. and Laura A. Janda(1996) *Common and Comparative Slavic: Phonology and Inflection with Special Attention to Russian, Polish, Czech, Serbo-Croatian, Bulgarian*, Columbus: Slavica.
- Vinokur, G. O.(1971) *The Russian Language: A Brie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lasto, A. P.(1986) *A Linguistic History of Russia to the End of the Eighteenth Century*, Oxford: Clarendon Press.
- Борковский, В. И. и П. С. Кузнецов(1963) *Истор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АН СССР.